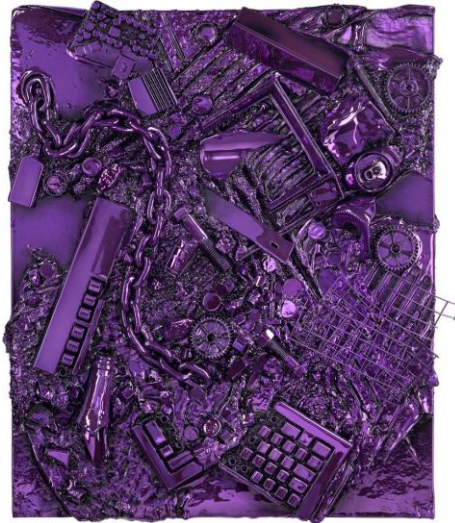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Anselm Reyle

안젤름 라일리



Untitled
2010

Aluminium, chrome optics, patina
68(h) x 60(w) x 12(d) cm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

2010년 10월 9일 - 2010년 11월 10일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안젤름 라일리 Anselm Reyle (Germany, 1970-)

일 정: 2010년 10월 9일 - 2010년 11월 10일

장 소: 국제갤러리 신관 1층 (문의: 733-8449)

개 관 시 간: 월요일-토요일: 10am - 6pm, 일요일: 10am - 5pm

보 도 자 료

○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독일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안젤름 라일리(Anselm Reyle)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풍미했던 추상회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 온 안젤름 라일리의 작품을 조망하면서, 작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온 차용과 변용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알루미늄 호일, 네온 빛, 아크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며 작업하는 라일리는 다양한 이즘에서 벗어나 작업하는 오늘날의 작가들과는 정 반대로, 모더니즘으로 회귀하면서 이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한다. 대형 사이즈의 회화와 조각, 부조 그리고 발견된 오브제를 통한 설치 등이 작업의 주를 이루는데, 작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모더니즘 미술운동들의 정신을 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추상표현주의, 색면회화, 옵아트 등의 20세기 미술사의 개념과 스타일을 부활시킨다. 동시에 이를 아이키아 (IKEA) 장식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의 동시대 스타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차용의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문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작가 자신만의 진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제 갤러리가 국내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1점의 조각 작품과 1점의 네온설치작품 그리고 9점의 부조 회화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 작가 소개

안젤름 라일리는 1970년 독일의 튀빙겐 (Tubingen)에서 태어났다. 아카데미 슈트가르트와 칼스루에 에서 수학한 그는 독일 베를린의 주류를 이끄는 미술계가 형상회화를 추구하고 학파를 만들어 가고 있을 당시의 미술현상에서 벗어나 바넷 뉴만, 엘스워스 켈리 등의 추상화가들의 작업을 재탐구 해 오며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세계를 확립해 왔다.

그는 해외 유수의 기관과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이름을 널리 알린바 있는데, 대표적인 전시로는 2006년 취리히의 쿤스트할레에서의 아르스 노바 ARS NOVA 전과 2007년 글래스고우의 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다섯번째 꿈 5th Dream, 2009년 뉴욕의 가고시안에서 있었던 모노크롬 시대 Monochrome Age 등이 있다. 그는 이외에도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와 테이트 모던, 이태리 베니스에서의 단체전에도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찰스 사치, 프랑소아 피노 와 더불어 크리스찬 보로스 컬렉션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 작품 세계

안젤름 라일리의 작업을 설명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구는 모더니즘으로의 회귀이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그의 작업방향은 '회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전진'의 태도라 볼 수 있다. 작가는 여러 20세기 미술사의 개념과 장르, 스타일들을 부활 시키면서 예술운동들의 핵심정신을 작품 전체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등의 상품의 형태로 변화,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환경에서 끊임없이 자극 받으며 이를 작업에 반영하는데, 이때 그의 작업에 영향이 되는 환경은 전후 독일의 사회주의 건축물에서부터 자본주의의 표상인 베흐름시장까지 다양하다. 라일리는 환경적 모티브를 가져와 때로는 이를 확대시키기도, 때로는 정반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키기도 하면서 20세기의 엄청난 사회, 정치적인 변화의 격동기를 시각화 한다. 이때 라일리는 문화의 상품화를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차용의 방법을 작업에 끌어들인다. 발견된 오브제라 불리우는 자동차 기어, 일상의 사물들이 작업의 재료가 되는데, 작가는 재기 발랄하게 변모된 오브제 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비판 없이 끌어들이면서 이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그리고, 오늘날 모더니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 도 자 료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Harmony

2010

Bronze, chrome optics, plinth with pianolacquer

90(h) x 90(w) x 40(d) cm

plinth: 98(h) x 108(w) x 46(d) cm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



Black Earth

2008

Mixed media on patterned fabric

67(h) x 56(w) x 5.5(d) cm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

보 도 자 료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Untitled
2010

Mixed media on canvas, acrylic glass
72(h) x 61(w) x 18(d) cm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



Untitled
2010

Mixed media on canvas, wooden frame
67(h) x 56(w) cm / frame 70(h) x 59(w) cm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

보 도 자 료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Untitled

2010

Found objects, neon tubes

“Courtesy of artist and Kukje Gallery, Inc.,”